

'삶의 질' 이대로 안된다

보건·복지·문화 경제규모 못따라가 후진국 언저리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았고 이젠 OECD 가입을 눈앞에 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 그러나 여전히 후진적인 삶의 질, 개발과 성장의 고단한 그림자가 하루하루의 생활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세계 12위의 교역국에 세계 3위의 전자제품 수출국, 선박건조량 세계 2위, 자동차·철강·시멘트·타이어 생산량 각각 세계 6위. 이같은 결과를 위해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과 저축률 등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답은 가혹하기만 하다. 간암과 교통사고의 사신(死身)이 활개치기로 세계최고이며 사회보장과 문화시설은 후진국 언저리를 담보하고 있다. 으름가

가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94년 수출 9백60억불, 수입 1천23억불, 전체 교역량 1천9백84억불로 모두 12위. 그러나 같은 기간 경상수지 적자가 45억불(세계9위), 무역수지 적자가 31억불(세계14위), 총외채는 4백39억불(세계8위)을 기록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한 경제생활 90~94년새 소비자물가가 29.3% 올랐다. 일본(7.1%) 캐나다(9.4%) 미국(13.4%)에 비해 훨씬 불안정. 한편 선진국의 10%대를 훨씬 넘는 35.2%의 저축률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비싼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또 우체국당 인구수가 94년 1만3천1백명으로 세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의 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달리는 흥기 인구 10만명당 35.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는 발생건수

떨어진 것, 사회보장 부담금이란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과 장애인 노령인구 등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경제성장에 걸맞는 소득재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16개에 한참 못 미친다.

높은 교육열 94년 유치원 취학율이 80%로 미국(62%) 일본(49%)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최고수준. 또 초급대 이상 취학율도 50.8%로 세계 5위. 94년 도서발행 실적이 9위를 기록한 것도 학습교재와 아동도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GNP대비 교육비지출은 4.2%로 말레이시아(5.1%)보다도 낮다. 거기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6.3명으로 10~15명선인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여성은 2등국민? 94년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 1백명에 비한 여아의 비율이 115.4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은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어디까지 왔나를 보여주는 충격적 수치. 여아 살해 등으로 세계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중국을 2위로 밀어낸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초급대학 이상 진학율의 경우 남자가 63.6%인데 반해 여자는 37.3%로 절반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거기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스웨덴(75.8%), 미국(58.2%)에 못 미치는 47.9%수준.

간암·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 2 위

고혈압·결핵사망 5 위...의사·병상 턱없이 부족

남아선호 부끄러운 세계최고

노동시간·저축률도 최고수준... '삶의 질' 아직도 먼 얘기

는 교육열은 모든 방면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국민의 각박하고 고달픈 삶의 현주소를 수치로 알아본다.

선진국수준의 경제규모 94년 조선수주량과 건조량이 2위를 차지했고 전자제품 수출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또 자동차·철강·시멘트·타이어 생산량은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94년 2천8백68억불로 세계 7위,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천9백18억불로 세계 13위를 기록, 우리 경제규모

42위. 대만(1천5백명) 미국(5천2백명)과 비교할때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도 태부족.

고달픈 노동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94년 48.7시간. 이는 같은해 일본의 37.6시간, 핀란드 38.2시간, 프랑스 38.7시간, 미국의 42.0시간, 멕시코의 44.8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그래도 85년의 53.8시간이나 90년의 49.8시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은 경제성장과 노동조합 운

5백98.6건으로 세계 3위, 사망자는 22.7명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는 도로 1Km당 자동차수가 1백대로 도로밀도 세계 4위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바닥 헤매는 사회보장 94년 정부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9.9%. 대부분 30%를 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국내총생산(GDP)중 사회보장 부담금도 2.5%로 독일(15.1%) 일본(9.8%) 미국(8.7%)에 턱없이 떨어진다. 그나마 94년 2.8%에서 더

돈이 먼저 건강은 나중 인구 10만명당 간암사망율이 23.4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 고혈압성 질환과 결핵사망율이 26.2명과 9.6명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보건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뒷받침된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94년 1백22명, 이태리(4백75명) 프랑스(3백명) 캐나다(2백24명)에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치. 그나마 이들 선진국은 대부분 80년대말의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거기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3개로 일본이나